

청년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선, 김진욱
서강대학교

청년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선**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김진욱***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분류 사회복지학

주제어 청년, 공정성 인식,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에서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경로분석을 통해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청년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 전체 집단의 경우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산출되었다. 청년 남성의 경우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들의 성평등의식은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의 경우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청년 여성의 성평등의식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년 세대가 생애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성장해 온 배경에 기초하여 성별에 따라 공정성 인식,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을 다르게 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 내 젠더별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주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청년 세대의 남녀 간 젠더 갈등은 주요한 사회 갈등으로 논의되며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태도와 입장의 차이가 젠더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상이 극한 대립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1년 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대립 양상이 가시화되면서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청년 세대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이 프레임의 중심에는 청년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목소리와 법과 권력이 여성의 편에 있다고 인식하며 페미니즘 실천을 불공정으로 받아들이는 청년 남성의 역차별 인식이 존재한다고 보고된다(김원정 외, 2021).

젠더 갈등의 본질은 공정성 담론에서 비롯된다. 청년 세대는 ‘공정 세대’라고 호칭될 정도로 이들에게 공정성은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 중요한 틀로 존재한다(이희정 · 박선웅, 2021).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는지,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등은 청년 세대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 파악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들에게 공정성은 생애과정에서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신광영, 2016). 그러나 청년 생애 과정에서 중요 사건인 입시, 채용에 있어 남녀 간 다른 대우나 고정관념이 작용한 사건들은 공정성 담론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강우진, 2020) 분노하였다. 성별에 따른 공정성 인식 격차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22)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73.4%에 달하였으나 남성은 29.2%에 불과하였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4.3%, 남성은 24.0%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청년 세대 내부에서 공정성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젠더 갈등의 최전선에는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 김창환과 오병돈(2019)의 연구에서 20대 여성은 남성과 학교, 학과, 학점 등 스펙이 모두 같아도 남성의 86.2%밖에 벌지 못하며 이에 따른 차별의식 및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보다 앞선 이시균과 윤정향(2008)의 연구에서도 청년 고학력자 여성은 결혼,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적 변화와 가족 환경과 같은 시장 외적 조건에 더 영향을 받고 있어 남성과 동등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별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남성은 여성할당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고안된 정책을 역차별이라 생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2). 청년 남성들은 남성, 여성을 성별과 무관하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평등의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에 입각한 정책들은 남성에 대한 기회 박탈로 받아들인다고 보고된다(김수아 · 김세은, 2016). 이들은 법이 본인이 속한 성별을 불공정하게 취급한다는 믿음을 지니며 남성이 약자라는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을 공유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김가영, 2021). 이처럼 청년 세대 내

성별에 따른 공정성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젠더 갈등의 최전선은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성별 차이에 주목하여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성 인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며, 개인이 마주하는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이희조·이명진, 2022). 청년 세대가 생애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다르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성별 집단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과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분석한다면,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년 집단의 젠더 의식에 대한 이해는 청년 세대의 갈등을 해결할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종합하여,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살펴보고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검증하고자 한다.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식 형성에 있는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 연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의 관련성과 성별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에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가 가진 공정성 인식,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정성 인식

공정성은 분배정의를 실행함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을 얼마정도 정당화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즉, 행위자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수록, 편파적이지 않은 경쟁이 이루어질수록 경쟁의 보상이 노력이나 성과에 따라 분배될수록 불평등은 공정성을 담보해낸 결과로 받아진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Adams(1965)의 공정성이론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노력의 대가로 받는 보상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이다. 개인의 노력에 비례하여 보상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분배가 공정하다고 인식한다(Adams, 1965). 그러나 보상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는 보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보상의 결정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이후 공정성 연구는 절차공정성의 개념을 포괄하여 이루어진다. 절차공정성은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 지느냐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여겨진

다. 2018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정성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다수는 분배에 있어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가 더욱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서치>, 2018).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훈련되어 온 세대로, 공동체나 연대 가치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닌 결과와 기회는 불공정하다고 여긴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다(<한겨레>, 2018). 특히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청년의 공정성 인식을 성별과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희정과 박선웅(2021)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청년 여성은 취업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수도권 청년 남성은 취업기회가 약간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미(2016)의 연구에서도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공정성 실태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여성은 청년 남성과 유사한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성별로 인한 직업지위와 소득 분배에서의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험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우명숙과 남은영(2021)의 연구에서는 상이한 성별 효과가 나타났는데, 한국 사회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정성 실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공정성 인식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안녕감이나 미래 전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청년은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무망감에 휩싸이게 된다(안계한·김민희, 2020). 거시적으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한 경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으며,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정진원, 2022).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세대가 직면한 성별에 따른 불평등 문제와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이 자신의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다고 느낄 때 경험된다(Crosby, 1976). 상대적 박탈감은 준거집단(referent group)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준거집단 개념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기대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한 가치 배분을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 의식과 관련이 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불평등한 배분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준거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소록, 2019).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높은 주거비용, 심리사회적 고립, 고용취약성 등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와 열악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청년들은 비정규직, 저소득과 같은 고용취약성을 경험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며 무한한 경쟁을 반복한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김진현, 2021). 청년 세대에 확산된 수저담론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 청년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계층을 ‘금수저’, ‘흙수저’ 등에 비유하는데, 이는 미래가 자신의 역량이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청년 세대의 수저 담론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하며, 결과를 얻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청년 세대 내에 팽배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사람인, 2020)에서 청년 구직자 1,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8%가 ‘취업에 유리한 성별이 있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과반수인 62.7%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성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성별로는 여성(55.7%)이 남성(31.4%)보다 취업에 유리한 성별이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준거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좌절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며,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분노하게 된다. 더 나아가 청년 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일으키며,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Greitemenyer and Sagioglou, 2016)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청년 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성평등의식

성평등의식은 성별에 자격, 의무, 권리 따위가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이 있다는 의식을 뜻한다. 김영옥과 마경희(2006)에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의식은 남녀 사이의 젠더 이슈 및 불평등을 지각하는 능력으로 젠더 인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영옥 · 마경희,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평등의식은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홍기원 외, 2003). 성별은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조자경(2018)은 서울시 소재 청년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성역할 고정 관념, 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나누어 성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여자 대학이 남녀 공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 관념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 내 여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 따른 성평등의식을 분석한 안상수 와 김금미(2008)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점은 20~30대의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높지만 청년 세대는 성별 간의 성평등 의식 차이가 크게 벌어져 성별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다(안상수 · 김금미, 2008).

여전히 노동시장, 가족, 학교 등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 여성은 기성세대의 여성에 비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통계청(2022)이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구조에 대한 성평등 의식을 묻은 결과, 20대 여성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

하는 비율이 73.4%로 나타나 여성 전체 연령 평균인 6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은 기성세대 여성과 달리 차별과 불평등에 보다 민감하며 기성세대 여성과는 달리 이를 당연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20대 남성은 현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29.2%로 남성 전체 연령 평균인 41.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대 남성이 24.0%로 남성 전체 연령 평균인 1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 남성은 기성세대 남성에 비해서 현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낮고,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식에 대한 청년 세대 내 인식 격차는 젠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청년 세대의 특징과 성별에 따른 집단 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4. 변수별 관계성 고찰

1)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개인은 공정성 인식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사회에 높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박종민·배정현, 2011). 예를 들어 결과물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비슷한 경력과 스펙을 갖춘 동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장 동료에 비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노동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상대적 박탈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개인적 차원에서 물질적, 사회활동적, 문화적 측면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말한다(이영미, 2018).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나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불평등 수준에 대해 인식하고 평가하는데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계층 인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김동훈·하상웅, 2020). 이같은 계층인식을 토대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다는 자원이 적다는 판단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Smith(2002)의 연구에 따르면, 불공정성을 느끼는 개인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며 상대적 박탈감에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주(2021)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성별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할당제가 공정하다고 지각할수록 해당 정책을 역차별이라고 지각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 공정성 인식과 성평등의식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정성 인식과 성평등의식 간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차별경험,

사회의 공정성 인식, 개인의 자부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지경(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강할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보다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류연규와 김영미(2019)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평등할수록, 불평등을 지각할수록, 성차별을 경험할수록 남녀 집단 간 갈등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을 더 인식하며 성차별 경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연규 · 김영미, 2019). 한편 여러 선행연구는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공정한 분배를 선호하고 내재화할수록, 특정 젠더에 따른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obocel, Davey, Son Hing and Zanna, 2001).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구조가 정당하다고 여길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까지 정당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와 맥을 함께한다(McCoy and Major,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능력과 노력 따른 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성평등의식과 상충되는 신념이며, 어느 한 쪽이 증가할 경우 다른 쪽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 한다(홍성혜, 2019). 안상수와 김금미(2008)의 연구에서는 불공정성 지각이 높을수록 적극적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공정성 지각이 영향을 미쳐 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적극적 조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obocel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직장 환경에 차별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우대 정책에 덜 저항적인 양상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은 능력에 따른 분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성평등의식의 증가 및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3) 상대적 박탈감과 성평등의식

성평등의식은 성차별적 지각과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Pahlke, Bigler and Green(2010)은 청소년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쪽에만 성차별, 성평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 직후와 6개월 후에 성평등의식, 성차별 지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작 조건의 청소년들은 교육 직후와 6개월 이후 모두 성차별 지각이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나아가 성평등의식을 더 추구하거나 페미니즘을 배울수록 성차별 지각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aper and Brown, 2008). 즉, 성평등을 더욱 추구하였을 때 일상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차별 경험은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Ongis and Davidai, 2022).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은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Ongis and Davidai, 2022; 길보민, 2022). 성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다고 느낄수록 타인의 이득은 자신의 희생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믿으며 자신과 반대 성별인 타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길보민, 2022).

한편 성평등의식은 남녀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을 비교한 리루이(201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평등의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성장환경과 나이 등의 요소를 통제하였을 때 성별이 성평등의식

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만연한 불평등의식과 젠더에 기반한 부당한 차별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선희 · 양난미, 2021) 국내에서 성평등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성 수준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과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공정성 인식,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 총 세 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김영미, 2016; 김은희, 2015; 홍미희, 2014; 이수인, 2012; 안상수 · 김금미, 2008) 학력, 직업, 소득구간, 혼인여부, 주거형태, 점유형태 요인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각 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이론을 기초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모형Ⅰ, 청년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Ⅱ, 청년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Ⅲ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결과의 강건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체집단을 두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또한, 성별 집단에서 드러나는 변수별 절대적 영향력과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한 집단이 절대적 우월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바라봄으로써 청년 남성, 여성 집단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의 민감도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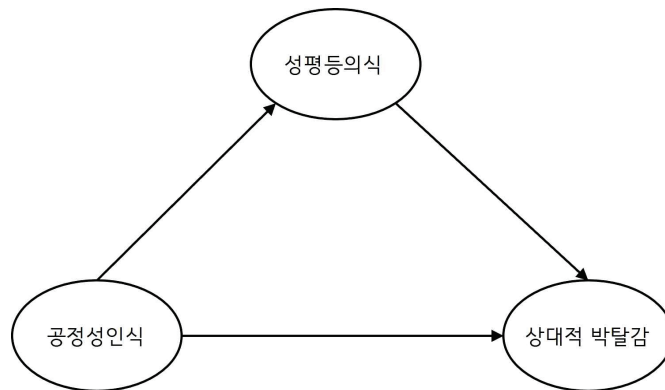
가설1: 청년의 공정성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청년의 공정성 인식은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청년의 성평등의식은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청년의 성평등의식은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간에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5: 20~30대 청년의 공정성 인식, 성평등의식, 상대적 박탈감 간의 작용하는 경로 영향성은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20~30대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참여자는 총 30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국내 패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다.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에 걸쳐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편의할당추출(convenience quota sampling)에 의한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하였고, 유효응답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 빠른 응답, 불성실 응답, 논리 오류자, 일렬 응답 등 불량 응답을 데이터 클리닝 조건으로 분류하는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연구변수

1) 독립변수: 공정성 인식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Lucas 등(Lucas et al., 2007)이 개발한 정당에 대한 믿음 척도(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를 김은하 외(2017)가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Korean-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따라 분배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으로 총 4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비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며,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한 바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 즉, 사회

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의 결정 과정이 공정한지 인지하는 정도이다. 문항은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나는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등으로 구성된다. 총 5점 Likert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높으며,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정성 인식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925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2) 종속변수: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측정도구는 Crosby(1976)가 제시한 상대적 박탈감 측정 척도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성에 맞게 김해인과 한은경(2018)이 인용수정한 14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나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총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65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3) 매개변수: 성평등의식

청년 세대의 성평등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 활용된 도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수연 외, 2019)에서 개발한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II)를 사용하였다.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II)는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여성의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부계 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로 총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남녀 간의 역할과 능력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할 수 있는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에는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여성의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는 ‘여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자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등과 같이 여성의 권리 요구나 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는 여성의 언어, 행동, 옷차림 등에서 조신함을 요구하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는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흉하다’ 등이 포함된다.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는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와 같이 남성의 역할, 남성다움, 책임과 관련한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계 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는 상속이나 가계 계승에서의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는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등이 구성된다.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와 같이 가정생활 내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와 이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측정할 수 있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성평등의식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944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SPSS/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2.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상관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한 뒤 AMOS 23.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고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위해서 잠재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와 측정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확보한 후,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최초, 수정 모델로 각각 확보하였다. 나아가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성평등의식을 매개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매개변수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분석표본의 사례수와 동일한 크기로 표본을 일정수만큼 반복 추출하여 각 표본들에서 얻어낸 매개효과 회귀계수들의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주거형태, 주택 점유형태, 소득구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306명 가운데 남성은 161명(52.6%), 여성은 145명(47.4%)이었다. 연령의 경우, 20대 152명(49.7%), 30대 154명(50.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가 206명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가 42명(13.7%), 고졸 이하가 33명(10.8%), 대학원 이상이 25명(8.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거주가 174명(56.9%), 다세대 및 다가구 거주가 90명

(29.4%), 단독주택이 29명(9.5%), 기타(고시원포함)이 13명(4.2%)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점유형태는 부모소유가 114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및 반전세 78명(25.5%), 전세 57명(18.6%), 본인소유 52명(17.0%), 기타 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n=306)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61	52.6	학력	고졸이하	33	10.8
	여성	145	47.4		전문대	42	13.7
연령	20대	152	49.7		4년대	206	67.3
	30대	154	50.3		대학원 이상	25	8.2
혼인 여부	미혼	240	78.4	직업	관리/전문직	57	18.6
	배우자있음	56	18.3		사무직	101	33.0
	동거	6	2.0		서비스/판매직	27	8.8
	이혼	3	1.0		전업주부	5	1.6
	별거	1	0.3		학생	43	14.1
주거 형태	아파트	174	56.9		무직/취준생	42	13.7
	단독주택	29	9.5		기타(자영업포함)	31	10.2
	다세대/다가구	90	29.4	소득 구간	100만미만	54	17.6
	기타(고시원)	13	4.2		100~200미만	28	9.2
점유 형태	부모소유	114	37.3		200~300미만	79	25.8
	본인소유	52	17.0		300~400미만	50	16.3
	전세	57	18.6		400~500미만	17	5.6
	월세/반전세	78	25.5		500만이상	78	25.5
	기타	5	1.6				

2. 변수별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공정성 인식,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을 측정하였다. 주요 변인들과 측정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 참여자인 청년 세대는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평균이 2.89점(SD=.7734),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평균이 2.99점(SD=.7908)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이 받는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며 노력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이 배분되지 않는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 참여자의 상대적 박탈감 평균은 3.20점(SD=.5574)으로 나타났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1.50과 4.71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평균에서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의식에 있어서는 부계중심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3.3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여성권리요구에

대한 태도(2.8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세대 내에서 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적극적인 요구가 다른 요인들의 인식 변화에 비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아름, 2022).

한편, 본 자료가 구조모형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를 기반으로 본 공정성 인식의 왜도 및 첨도는 구조 모형 검증에 필요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수별 기술통계 (n=306)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정성인식	1.31	4.81	3.16	.6092	-.277	.639
분배공정성 개인적 믿음	1.00	5.00	3.37	.6937	-.582	.676
절차공정성 개인적 믿음	1.25	5.00	3.39	.6146	-.235	.515
분배공정성 일반적 믿음	1.00	5.00	2.99	.7908	-.266	-.147
절차공정성 일반적 믿음	1.00	5.00	2.89	.7734	.015	-.168
상대적 박탈감	1.50	4.71	3.20	.5574	.109	.353
성평등의식	1.71	4.00	3.17	.5193	-.244	-.897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1.38	4.00	3.29	.6094	-.627	-.200
여성권리 요구	1.00	4.00	2.85	.8055	-.288	-.640
여성 성역할규범	1.33	4.00	3.30	.6518	-.574	-.576
남성 성역할규범	1.25	4.00	3.13	.6383	-.378	-.458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1.67	4.00	3.33	.5649	-.230	-1.097
가정에서의 성평등	1.50	4.00	3.26	.6213	-.388	-.836

3.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의 집단 간 공정성 인식,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공정성 인식과 성평등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인식의 경우 남성 평균은 3.29, 여성 평균은 3.0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003$, $p<.001$), 남성이 여성보다 현 사회에 대한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평등의식의 경우에도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성 평균이 2.89, 여성 평균이 3.48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1.709$,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대적 박탈감을 분석한 결과 남성 평균이 3.16, 여성 평균이 3.24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공정성인식	남	161	3.29	.596	.003***	.000
	여	145	3.02	.592		
상대적박탈감	남	161	3.16	.562	.183	.183
	여	145	3.24	.550		
성평등의식	남	161	2.89	.449	1.709***	.000
	여	145	3.48	.404		

***p<.001 **p<.01 *p<.05

4. 상관분석

〈표 4〉 주요변인 상관관계

변수	1	2	3
1. 공정성인식	1		
2. 상대적박탈감	-.154**	1	
3. 성평등의식	-.146*	-.101	1
평균(표준편차)	3.161(.609)	3.199(.557)	3.173(.519)

***p<.001 **p<.01 *p<.05

연구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은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평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 반면 현 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대우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 사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감소하고, 현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지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간의 부적관계를 보고한 김나래와 이기학(2012)의 연구와 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을 때 개인은 사회에 대한 불공정성을 느끼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박종민과 배정현(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공정성 인식과 성평등의식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성평등한 사회 즉,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태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현 사회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성 평등한 사회를 지지하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양성평등 의식을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바는 차별과 불평등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나 노력 부족으로 원인을 바라봄과 동시에 정당화하여서 성차별 지각과 양성평등의식이 낮아진다는(McCoy and Major, 2007)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홍성혜(2019)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들 특히, 청년 남성은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에서 찾고 이는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하였다(홍성혜, 2019). 즉, 사회구조의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에서 원인을 찾았을 때 오히려 차별을 성립시키는 사회 구조적인 특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이는 차별 지각을 감소시키어 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태도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성평등의식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 사회에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내에서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던 경험을 개인의 문제로 돌려 사회 구조적인 특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의 불공정성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Tan et al.,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5.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1) 제안모델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은 청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Ⅰ, 청년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Ⅱ, 청년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Ⅲ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같은 분석 방법은 결과의 강건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체집단을 두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또한, 청년 세대 내 성별 집단에서 드러나는 변수별 절대적 영향력과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 남성, 청년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표 5>는 청년 전체 집단, 청년 남성 집단, 청년 여성 집단의 수정제안모델의 적합도 검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향상하기 위해 SMC 지표를 활용하여 각 측정 변수들에 대하여 변수 정제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제안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활용하여 초기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먼저, 청년 전체 집단의 제안 모델에 변수 간 공분산을 설정 한 결과, $\chi^2=304.102(p=.000)$, $CMIN/DF=1.671$, $GFI=.913$, $AGFI=.890$, $CFI=.967$, $NFI=.921$, $IFI=.967$, $TLI=.961$, $RMR=.037$, $RMSEA=.047$ 로 카이제곱 통계량은 감소하고 적합도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청년 남성 집단의 제안모델 적합도 검증 결과, $\chi^2=239.698(p=.000)$, $CMIN/DF=1.462$, $GFI=.876$, $AGFI=.841$, $CFI=.948$, $NFI=.855$, $IFI=.949$, $TLI=.940$, $RMR=.047$, $RMSEA=.054$ 로 나타났다. GFI와 AGFI는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청년 남성 CFI 지표값은 .948로 나타나 모델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수준이라 해석할 수 있다(송지준, 2008). 청년 여성 집단의 제안모델 적합도 검증 결과, $\chi^2=222.842(p=.002)$, $CMIN/DF=1.359$, $GFI=.876$, $AGFI=.842$, $CFI=.964$, $NFI=.879$, $IFI=.965$, $TLI=.959$, $RMR=.046$, $RMSEA=.050$ 으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5〉 모델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p	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TLI	RMSEA
전체	304.102	.000	1.671	.037	.913	.890	.967	.921	.967	.961	.047
남성	239.698	.000	1.462	.047	.876	.841	.948	.855	.949	.940	.054
여성	222.842	.002	1.359	.046	.876	.842	.964	.879	.965	.959	.050

2) 제안모델의 분석결과 및 연구가설 검증

독립변수인 공정성 인식이 매개변수인 성평등의식, 종속변수인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제안모델의 경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1〉 청년의 공정성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청년 전체 집단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은 99%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계수값 $-.219$, $C.R=-3.189$, $P=.001$). 한편 성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 남성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남성의 경우 〈가설1〉은 기각되었다. 반면 청년 여성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은 99%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계수값 $-.351$, $C.R=-2.892$, $P=.004$).

〈가설 2〉 청년의 공정성 인식은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청년 전체 집단의 공정성 인식이 성평등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전체 집단의 〈가설2〉는 기각되었다. 반면 성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 남성의 공정성 인식이 성평등의식에 9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계수값 $=.193$, $C.R=2.570$, $P=.010$). 청년 여성의 〈가설2〉 검증 결과, 청년 여성의 공정성 인식이 성평등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 여성의 경우 〈가설2〉는 기각되었다.

〈가설3〉 청년의 성평등의식은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청년 전체 집단의 성평등의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전체 집단의 〈가설3〉은 기각되었다. 반면 성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9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계수값 $-.259$, $C.R=-2.193$, $P=.028$) 청년 남성의 〈가설3〉은 채택되었다. 청년 여성의 성평등의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여성의 경우 〈가설3〉은 기각되었다.

〈가설4〉 청년의 성평등의식은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사이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청년 전체 집단은 성평등의식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4〉는 기각되었다. 청년 남성의 경우 공정성 인식은 성평등의식을 경유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95%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남성의 〈가설4〉는 채택되었다. 반면 청년 여성의 공정

성 인식은 성평등의식을 경유하지 않으며, 성평등의식은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사이에 매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년 여성의 <가설4>는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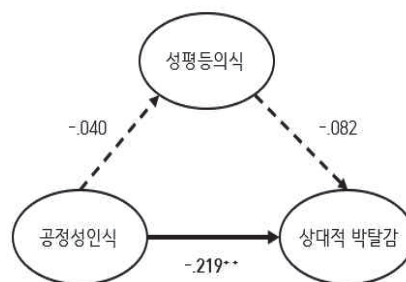
제안모델의 가설 검증 결과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공정성 인식, 성평등의식, 상대적 박탈감 간의 작용하는 경로영향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기에 <가설5>는 채택되었다.

<표 6> 경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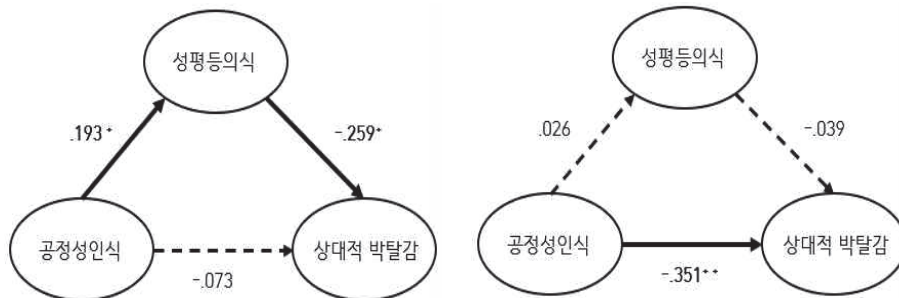
구분	경로(가설)			계수값	C.R	P값	간접효과	
							계수값	P값
전체	공정성인식	→	상대적박탈감	<i>-.219</i>	<i>-3.189</i>	<i>.001**</i>	.003	.396
	공정성인식	→	성평등의식	-.040	-.659	.510		
	성평등의식	→	상대적박탈감	-.082	-1.212	.228		
남성	공정성인식	→	상대적박탈감	-.073	-.823	.411	<i>-.050</i>	<i>.035*</i>
	공정성인식	→	성평등의식	<i>.193</i>	<i>2.570</i>	<i>.010*</i>		
	성평등의식	→	상대적박탈감	<i>-.259</i>	<i>-2.193</i>	<i>.028*</i>		
여성	공정성인식	→	상대적박탈감	<i>-.351</i>	<i>-2.892</i>	<i>.004**</i>	-.001	.724
	공정성인식	→	성평등의식	.026	.436	.662		
	성평등의식	→	상대적박탈감	-.039	-.223	.824		

본 연구에서 청년 여성 집단의 공정성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공정한 사회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성 인식은 개인의 경험과 성장해 온 환경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별에 따른 부당한 대우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현 사회를 바라보는 공정성 인식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 여성 집단은 생애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차별 경험으로 인하여 성평등의식을 경유하지 않아도 현 사회의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현 사회의 공정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년 남성의 경우 이러한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남성의 공정성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평등의식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청년 남성들은 청년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현 사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남녀 사이의 젠더 이슈와 불평등을 인지하는 성평등 의식이 작용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 남성의 성평등 기제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성평등의식 척도를 확인하였을 때, 성평등의식 하위 변인 중 “여성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권리 요구 및 성평등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청년 남성은 남성의 군복무, 여성 채용 기준,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등을 공정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여러 선행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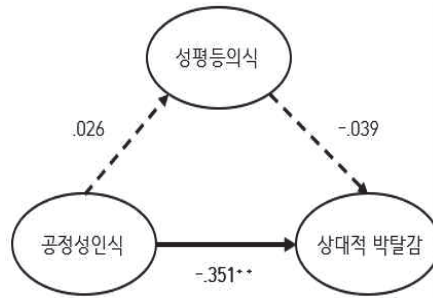
구에서는 청년 남성은 법과 제도가 본인의 성별에게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여기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보고한다(박정훈, 2019; 정재원 · 이은아, 2021). 따라서 특정 성별에 대한 정책들은 공정성에 어긋난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집단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집단이라 간주한다. 이를 종합하자면, 청년 남성은 청년 여성보다 비교적 현 사회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이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성이 약자라는 인식과 역차별 감정으로 해석되는 성평등 의식이 작용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 청년 집단 경로계수



〈그림 3〉 남성 집단 경로계수



〈그림 4〉 여성 집단 경로계수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년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에서 성평등의식의 매개변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해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검증하였고, 이 경로에서 성평등의식이 매개효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청년 전체 집단의 공정성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공정성 인식은 성평등의식을 경유하지 않아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년 세대에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공정성’을 살펴볼 대목이다. 청년 세대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훈련된 세대로 공동체나 연대의 가치를 경험한 적이 없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기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닌 모든 결과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진원, 2022). 이들은 치열한 경쟁상황에 생존하기 위해 성별을 막론하고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차별과 배제를 용인해서라도 공정성 규칙을 관철시키는 집단이라는 해석 또한 제기된다(황연수, 2021).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동일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획득한 결과만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청년 집단에게 공유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고위층 자녀의 특혜 및 비리 등은 청년 세대 내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는 지각을 공유하게 하였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년 세대는 부모의 귀속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많이 경험하는 연령층으로(김영미, 2016) 본인의 노력이나 역량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들은 청년 세대가 성별과 무관하게 현 사회의 불공정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청년 세대가 젠더감수성인 성평등의식을 경유하지 않아도 사회구조에 대한 불공정성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가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동질적인 단일 집단이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다분화(多分化)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유빈 외, 2019). 특히 젠더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남성 집단, 청년 여성 집단을 구분하여 청년 세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청년 남성의 공정성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평등의식의 완전매개효과로서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남성이 인식하는 성평등의식은 무엇이며 그 기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역차별에 대한 반감 정서와 반페미니즘 의식으로 대표되는 ‘20대 남성성 현상’이 주목 받고 있다. 천관울과 정한울(2019)은 남성 차별에 대한 정서와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특정 성별에 입각한 정책에 반감을 드러내는 ‘20대 남성성 현상’이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20대 남성들은 남성과 여성이 같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권력이 여성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 다방면에서 법이 본인의 성별을 불공정하게 취급한다는 믿음을 지닌다고 보고된다(김가영, 2021). 이는 청년 남성에게 핵심 정서로 작용하여 여성,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역차별로 인식하게 된다(박정훈, 2019). 한편 정재원과 이은아(2021)에 의하면, 청년 남성들은 사회 규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성을 중시하여 사회적 소수집단을 노력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집단으로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청년 남성 집단은 특정 성별에 입각한 성평등 정책은 능력과 노력이 없는 집단에 대한 특혜라 생각하며, 오히려 역차별 정책이라 인식하는 것이다(정재원 · 이은아, 2021). 이는 본 연구의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보다 현 사회의 공정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여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성 역

차별에 대한 반감정성과 반페미니즘 의식으로 대표되는 청년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매개효과를 미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청년 여성의 경우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년 남성과 달리, 청년 여성은 성평등의식 즉, 젠더감수성을 지니지 않아도 공정성 인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세대가 생애과정에서 겪는 경험이 달라짐에 따라 공정성 인식을 다르게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희조·이명진, 2022). 청년 여성은 생애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 경험으로 인하여 성평등의식을 경유하지 않아도 현 사회의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년 생애 과정에서 이미 ‘젠더’라는 변인은 청년 남성보다 청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세대 내 결혼과 출산 등 미래 전망에 대한 응답에는 성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김유빈 외, 2019). 구체적으로 청년 남성은 경제력 확보에 더욱 강한 의무감을 가지지만, 청년 여성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결혼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김유빈 외, 2019). 이같은 인식은 청년 여성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겪는 불공정성,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여성은 동일한 조건인 청년 남성에 비해 일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노동시장 퇴출에 있어서 비자발적 퇴사율이 비교적 높으며,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있어서는 보다 열악한 일자리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용 외, 2013). 노동시장 진입과 같은 청년 생애과정에서 청년 여성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젠더감수성을 경유하지 않아도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즉, 청년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차별받은 경험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내재화시켜(김지경, 2002) 성평등의식을 경유하지 않아도 불공정성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청년 집단은 전반적으로 현 사회에 대한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노력에 비례하는 분배와 투명한 절차를 중요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의 수립과 수립된 제도의 엄격하고 투명한 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공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의 심화는 사회 연대 의식을 약화시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정진원, 2022). 여러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세대가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더불어 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무한경쟁 사회와 불공정성으로부터 겪는 박탈감을 잘 대처하고 관리하는 대처 자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 세대 내 젠더별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남녀의 서로 다른 불만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별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젠더에 기반하여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의 관계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가지는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청년 세대들의 불공정성 인식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며 이에 분노 혹은 우울이 심해지고 있다(안계한·김민희, 2020)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청년 세대의 불안, 분노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의식 형성기에 있는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한국에서 공정성 인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연구 주제로서도 활발하게 채택되지만, 성별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공정담론은 성별에 따른 이해관계에 의해 다르게 다루어지고 해석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이희조·이명진, 2022)점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본 연구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 특성으로 인한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횡단면 데이터는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이 사회적 사건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 온 양상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청년 세대의 공정성 인식, 상대적 박탈감, 성평등의식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면 더욱 풍성한 논의가 되리라 기대한다. 둘째, 연구방법론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전문업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양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경우 설문 응답자의 당시 환경이나 지식, 고정관념 등으로 인하여 인식상의 편견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타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면접법 등의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참여적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서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신의 성별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요소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위에 열거한 문제점을 극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20, 「무엇이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9(2): 37-61.
- 길보민, 202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에 대한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가영, 2021,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균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래 ·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75-191.
- 김동훈 · 하상웅, 2020, 「소득 불평등 인식과 정부신뢰: 주관적 계층 상승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28(1): 49-85.
- 김민주, 2021, 『적극적 우대조치로 인한 역차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아 · 김세은, 2016,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페이스북 ‘여성혐오’ 페이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5-44.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영옥 · 마경희, 2006,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사회비전 2030-2030년 여성의 미래, 장밋빛 비전은 없다」, 『젠더리뷰』, 3: 61-68.
- 김원정 · 김선아 · 정윤미 · 이성준 · 윤빛나리, 2021, 『청년세대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유빈 · 강민정 · 고영우 · 김영아, 2019, 『청년 삶의 질 연구(III): 빈곤, 여성, 지역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하 · 김지수 · 박한솔 · 김도연 ·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은희, 2015, 『주관적 계층과 객관적 계층의 불일치에 따른 여가와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경, 2002, 『성차별 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현, 2021,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2): 83-100.
- 김창환 · 오병돈, 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않는가?: 대졸 20 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 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167-204.
- 김해인 · 한은경, 2018,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매개된 관음증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 박탈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0(4): 442-475.
- 류연규 · 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 리루이, 2019, 『한중 대학생 ‘젠더감수성’ 비교: 측정도구 개발 및 결과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훈, 2019, 「20 대 남성 지지율」에 파문한 젠더 문제의 본질』, 『황해문화』, 208-223.
- 박종민 · 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2.

- 송지준, 2008,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21세기사.
- 신광영, 2016, 「불평등, 격차, 소득집중과 양극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81-489.
- 안계한 · 김민희, 2020,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457-477.
- 안상수 · 김금미, 2008,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성평등의식, 적극적 조치, 공정성 지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99-324.
- 우명숙 · 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의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 연구』, 64(1): 201-244.
- 이소록, 2019, 『상대적 박탈감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 김민순 · 고재훈, 2019,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개발(2): 표준화 기준 마련 및 검사활용 매뉴얼 제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인, 2012, 「소득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전망』, 26: 239-288.
- 이시균 · 윤정향, 2008, 「청년층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실증 연구」, 『산업노동연구』, 14(2): 59-93.
- 이영미, 2018,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박탈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논집』, 30(1): 195-218.
- 이희정 · 박선웅, 2021,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분절화: 지역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3): 71-99.
- 이희조 · 이명진, 2022, 「한국청년세대의 젠더에 대한 의식과 정치이념이 능력주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1-28.
- 임아름, 2022, 『영유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용 · 오민홍 · 전재식 · 박광배, 2013, 『청년 노동시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선희 · 양난미, 2021,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우울의 관계: 젠더감수성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시아여성연구』, 60(2): 263-296.
- 정재원 · 이은아, 2021, 「청년 공무원은 성 주류화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을까?」, 『여성연구』, 111(4): 139-163.
- 정진원, 2022,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결정요인: 중장년층 및 노년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4): 135-161.
- 천관율 · 정한울, 2019,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시사N북.
- 홍기원 · 김명소 · 한영석, 2003,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심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19-33.
- 홍미희, 2014, 『인천시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홍성혜, 2019, 『성 평등 의식이 능력주의와 성차에 따라 성차별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연수, 2021, 『청년 세대 공정성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충북 지역의 공무원시험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J. Stacy., 1965, "Inequity in Social-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267-299.
- Bobocel, D. R., Davey, L. M., Son Hing, L. S. and Zanna, M. P., 2001, "The concern for justice and

- reactions to affirmative action: Cause or rationalization” , *Justice in the workplace*, 2: 121-143.
- Crosby, F., 1976, A “model of egoistical relative deprivation” , *Psychological review*, 83(2): 851-13.
- Greitemeyer, T. and Sagioglou, C., 2016,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causes aggression: A test of the theory of social depriva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2): 178-194.
- Leaper, C. and Brown, C. S., 2008, “Perceived experiences with sexism among adolescent girls” , *Child development*, 79(3): 685-704.
- McCoy, S. K. and Major, B., 2007, “Priming meritocracy and the psychological justification of inequality” ,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341-351.
- Ongis, M. and Davidai, S., 2022,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and the belief that economic success is zero-sum”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1(7): 1666-1680.
- Pahlke, E., Bigler, R. S. and Green, V. A., 2010, “Effects of learning about historical gender discrimination on early adolescents’ occupational judgments and aspirations” ,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6): 854-894.
- Smith, H. J., Ryan, D. A., Jaurique, A. and Duffau, E., 2020,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 *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20(1): 287-314.
- Tan, X., Liu, L., Huang, Z. and Zheng, W., 2017, “Working for the hierarchical system: The role of meritocratic ideology in the endorsement of corruption” , *Political Psychology*, 38(3): 469-479.
- <사람인>, 2020, 「구직자 10명 중 4명, 취업에 유리한 성별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7961&listType=news. (검색일: 2023.05.07.)
- <여성가족부>, 2022, 「성평등 체감도 상승했으나 일터와 돌봄의 성별 불균형, 여성폭력 현실에 높은 문제의식」, https://kostat.go.kr/board.es?mid=b40102010300&bid=12074&tag=&act=view&list_no=419306&ref_bid=. (검색일: 2023.04.10.)
- <조선일보>, 2022, 「이대남 여성비율 목표 정해놓고 女교수만 뽑는게 공정인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7/6DWIY2NIDZB7ZNUA7JY5U7MSIM/. (검색일: 2023.03.02.)
- <통계청>, 2022,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b40102010300&bid=12074&tag=&act=view&list_no=419306&ref_bid=. (검색일: 2023.05.07.)
- <한겨레>, 2018, 「청년층, 생존에 내몰려 공정성에 민감... ‘세대 연대’ 절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1913.html. (검색일: 2023.04.10.)
- <한국리서치>, 2018,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716>. (검색일: 2023.03.21.)

The Effect of Fairness Perception on Relative Deprivation among Young Adults: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Equality and A Gender Comparison Study

Kim, Eunsun
(Sogang University)
Kim, Jinwook
(Sogang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Key words Young Adults, Fairness Perception, Gender, Relative Deprivation, Gender Equality, Inequality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fairness perception among young adults aged 20 to 30 on their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and investigate whether the mediating role of gender e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irness and relative deprivation varies according to gender. To fulfill these research objectives, an online survey was administered to a sample of 306 young adult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while perceived fairness significantly influences relative deprivation across the entire young adult group. Moreover, the group's gender equality was found not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relative deprivation, indicating it does not serve as a mediator between perceived fairness and relative deprivation. Interestingly, for the male subset, although perceived fairness did not affect relative deprivation, The gender equality of young mal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irness and relative deprivation. In contrast, within the female subset, while perceived fairness significantly impacted relative deprivation, it did not influenc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 gender equality of young females does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irness and relative deprivation. In light of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social welfare strategies to address gender-based polarization within young generations.

접 수 일 : 2023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 2023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5일